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주름형태로 나타난 감정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한 지 혜

주름형태로 나타난 감정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한 지 혜

인 준 서

한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3년에 창작된 연구자의 작품에서 힘의 작용으로 드러난 주름의 형태와 그 속에 내재된 상반된 감정을 통해 안과 밖의 인간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힘의 구조가 미친 변형된 형태인 주름을 통해 인간의 상반된 감정과 연결 지어 힘과 주름의 구조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인간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과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은 대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다른 성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회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은 힘이 주름을 통해 드러나 있고 그 힘의 조형성이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흔적과 그 흔적을 지닌 시간의 흐름이 표면적인 주름의 형태로 보여 지는 것이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통해 상반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를 지녔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가장 작은 단위는 주름이며 그것이 켜켜이 쌓여짐이 방대한 사회를 만들고 세계를 구축한다’ 라고 말한다. 주름은 단순히 형태적 묘사가 아닌 사회에 발생하는 사건을 덩어리로 묶어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심리적인 감정의 형태를 주름의 대조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 주름들은 하나의 구조(힘)에서 시작하며, 수많은 연속적 구조를 가진 주름은 인간사회에 상주하는 감정 형태의 대립과 융합을 표현한다. 또한 힘의 작용으로 변형되어진 주름의 형태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부드러움의 공존을 통해 상반된 감정을 표현한다.

제 I 장의 서론은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과 목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 II장의 본론에서는 3절로 구성되어졌으며, 제 1절에서는 작품의 형성배경이 되는 힘의 형태가 힘의 구조가 평형하지 못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상호보완적인 감정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고,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성인 주름의 연속의 구조와 당김과 밀어내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상반된 감정의 형태를 조형화, 시각화 하였으며, 작품에 드러난 흰색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설치방식과 사용되어진 재료와 작품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제 III장의 결론에서는 본 작품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 작품의 보완점과 문제점을 짚어 앞으로의 작품연구 방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형성배경	2
1) 힘의 형태	2
2) 안과 밖의 공간	4
2. 조형적 특성	5
1) 힘-주름	5
2) 상반된 감정표현	8
3) 흰색의 의미	10
3. 작품분석	12
III. 결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흔적을 남기다 (Leave a trace), FRP, 가. 120x120x48cm / 나. 73x78x32cm, 2013	12
【작품2】 한곳으로 모여들다 (Converge at one place), 철판, 천(fabric), FRP, 560x560x800cm, 2013	14
【작품3】 대립 관계 (Antagonistic relationship), 철판프레임, 천(fabric), 와이어, 가. 90x45x130cm / 나. 150x45x180cm, 가변설치, 2013	17
【작품4】 내면의 분출(Belch out inner), 철판, 천(fabric), FRP, 560x560x120cm, 2013	20
【작품5】 Action wrinkle, 천(fabric), 캔버스천에 프린팅, 각 30x30cm, 가변설치, 2013	23
【작품5】 Action wrinkle, 설치전경	24
【작품6】 이중의 벽(A double wall), 천(fabric), 커튼봉, 20x340x280cm, 가변설치, 2013	27

I. 서론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힘의 작용은 드러나지 않은 물체가 천을 잡아당기고 있거나 밀어내고 있는 형태를 가진다. 천은 틀에 매여 현재를 지키려 하고 내부에 있는 힘과 외부에 있는 힘이 서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듯 힘을 과시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대체적으로 힘을 받은 후의 형태를 고정시키거나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흔적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의 형태가 단순하고 간결한 힘의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드러나지 않은 힘은 수축된 형태를 통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뽀족한 것이기도 하고, 유연한 구의 팽창된 형태이기도 하며, 의미 없는 손짓을 통해 생겨난 주름의 형태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인간의 감정에는 항상 두 가지 이상의 모순된 감정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 대립은 늘 충돌하고 갈등하지만 하나의 인간 본성에서 출발하며 시작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태도가 팽배해져 있는 사회속에 얽힌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의지가 힘으로 드러나 있고 그 힘은 평형을 찾지 못한 불안정함과 긴장감을 유지함으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힘의 작용으로 나타난 천의 변형이 주름으로 표현되어 인간관계의 감정의 대립을 당겨지고 밀어낸 형태에 중점을 두었다. 인간의 상반된 감정의 대립과, 연속의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통해 현대사회는 늘 두 가지 이상이 대립하지만 결국 합일점을 이루며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진 의미와 힘의 작용으로 인해 드러난 작품의 형태에서 오는 긴장감 등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연출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배경

1) 힘의 형태

힘의 작용과 반작용은 뉴턴의 제 3법칙으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 할 때 힘을 받는 물체는 힘을 작용한 물체에 받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물체의 작용점은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세상은 힘이 평형을 이루어져야만 원만히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상반된 것들의 균형을 맞추느라 인생에서 주어진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간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의한 힘이든, 사회와 개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든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힘’이라 말하는 것은 늘 발생해 있고 작용한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쪽으로든 더 강한 방향을 향해 진행되어져 있다. 이러한 힘의 형태들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지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도 잠재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사이의 흐름에도 서로 대립하지만 보완하고 맞추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에 들어갔을 때 힘에 의해 끌어당겨진듯한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한곳의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는 형태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서 긴장된 감정을 유발하고자 한다. 자신이 보는 시야에서 주름이 모여든 가운데 점은 아주 작은 점으로 표현되는데, 한곳으로 모여드는 여러 주름의 형상이 중첩되어진 형태를 통해 시각이 끝 지점에 도달했을 때 흡수되어 들어갈 것 같

은 힘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는 부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당함을 이겨낼 자신이 없거나 피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쉽게 포기에 이르거나 좌절하며 순응하며 살아간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채 억제된 감정은 우리를 점점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한 상태의 감정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으로 표출되며 날카롭고 치명적이다. 하지만 누구나 감정을 통솔하지 못한 채 의식적이지 못한 무의식을 빌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변형을 일으키는 힘은 당기거나 밀어내거나 구부리거나 움켜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안과 밖의 많은 힘에 의해 무수히 많은 변형을 받기도 한다. 내부의 움직임이 천에 가해질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강하게 당겨져서 팽팽한 상태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안감 빨려 들어가는 방향성을 통해 압박을 받는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부드러운 당김을 통해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에서 오는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표현하였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조형성을 대립적인 형태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이 두 가지의 감정적 형태 또한 상호보완적이며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힘의 형태가 나타남은 시간의 흐름과 흔적이 남는다. 그러한 흔적을 통해 힘이 지나간 방향이나 크기를 알 수 있다. 힘의 흔적을 통해 드러난 조형적 의미는 사라짐, 상실 또는 부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과거가 되기도 한다. 흔적은 주어진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일어났던 일말의 과정이 없어지지 않고 존속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자연스레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2) 안과 밖의 공간

현대미술에 있어 장르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설치방식은 공간경험과 지각을 통하여 사물과 예술에 대한 획일화된 전통적인 개념을 초월하고, 실재하는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예술품과 관객, 그리고 예술가의 절대적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설치미술로 변화하고 있다. 예술가가 작품의 주제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작품을 마주 대한 상황이나 공간에 주목하는 것은 분명히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조각이 건축과 독립된 이후 작품이 놓이는 공간과 상관없이 제작되고 관람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술작품의 설치공간이 흰 벽면으로 구성된 공간인 이유는 주위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조각 작품만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작품이 공간과 합을 이뤄 내어 가지는 의미 또한 관람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설치를 통한 공간이 드러나 있다. 이 공간은 안과 밖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본성에도 내면과 외면이 존재하며, 본인의 작품에서도 힘이 가해져 당겨진 방향과 밀려나오며 생긴 두 가지의 방향이 존재한다. 또한 주름형태가 생기면서 숨겨진 안쪽 구조와 바깥쪽 구조가 드러남을 통해 상반된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황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 위치가 바깥에서 안으로 고정되어 있고 반대적인 입장인 안에서 바깥으로의 시각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조적인 입장에 놓인 현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 원론적으로 안과 밖은 하나의 세계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설치작품들의 형태도 공간을 통해 안과 밖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의 힘에 의해 당겨져 있는 형태를 통해 빨려들어갈 것 같은 긴장감과 반대쪽 시각에서 체험된 나를 향해 공격적으로 다가오

는 힘을 느낄 수 있다. 들어가고 나오는 주름의 형태에 보여 지는 형태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밀려나온 구조가 안쪽에서는 반대적인 구조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난 의미는 같은 형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상반된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는 형태의 경계를 서로 맞대고 있는 안과 밖의 공간과 둘 사이의 작용을 표현한다.

2. 조형적 특성

1) 힘-주름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는 힘이 존재한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도 힘이 존재한다.

힘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작용을 말한다. 물리학에서의 힘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 드러나는 탄성력, 마찰력 등이 있고 중력, 자기력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다.¹⁾

작용과 반작용의 물리적 법칙에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성립된다.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닥에 공이 놓여 있으면, 지구가 공을 끌어당김과 동시에 공도 지구를 당기고 있다. 두 번째는 한 물체가 아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므로 합성 할 수 가 없다.

또한 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권력이나 재력 등을 나타내기까지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1) 최중근, 이성범, <해석 재료역학>, 과주, 청문각, 2007, p.18-19

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띄고 있지만 이 역시 상호관계에 놓여있다.

모든 물질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본래의 형태가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재료에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이 재료 내부로 전해져 재료 내부에는 변형을 유발시키려는 힘과 변형에 저항하려고 하는 내부 반발력이 발생하여 전체가 평형을 찾으려고 한다.²⁾

편안한 상태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천을 어떤 것이든 압력을 가했을 때 주름이 생기며 압력의 주체가 드러난다. 물체의 형태의 모서리마다 당겨진 주름들이 표현이 되며 그 형태가 무엇인지 유추해 내기도 한다.

미술에서 표현되는 힘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존재를 보여주기도 한다. 힘의 크기나 방향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작품에 변형되어진 순간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변형을 받은 후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한다. 정적인 상태로 정지되어 있지만 주름이 만들어낸 방향성은 움직임을 드러낸다.

본인은 당겨지는 것과 밀어내는 것에 의한 반대 성향의 힘을 통해 드러난 주름으로 이중적 관계에 놓은 우리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는 하나의 구조 속에 아주 많은 인간의 성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구성원일 뿐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힘의 균형이 깨져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실생활에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중된 힘을 보지 않은 채 하며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 사이에서 오는 충돌을 의식적으로 온전하게 견뎌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원래의 세상이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하며 맞추고 순응한다.

2) 최종근, 이성범, <해석 재료역학>, 과주, 청문각, 2007, p.51,57-58

힘에 의해 생겨난 주름의 구조는 접힘에 의해 생기는 형태인데 접히는 행위를 통해 선이 생기고 두 개의 면이 생기지만 실제로 전체를 보면 하나의 면적이다. 이 접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형태가 생기는데 본인은 감추어진 면과 드러나는 면이 가진 관계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 모든 주름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접히는 부분과 펼쳐지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펼침과 접힘은 반대되는 성격이 아니라 또 다른 접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펼침은 증가함, 자라남이고, 접힘은 감소함, 줄어들어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매순간 두 가지 관념을 나누면서 연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3)

수많은 접힘이 반복되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 즉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접힌 안쪽 구조에 숨겨진 비밀과 펼쳐진 바깥쪽 구조에 나타난 미래를 통해 내면을 형성하고 또한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 평평했던 종이 복잡한 형태로 도달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접힌 지점과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을 무한히 산출하기 때문이다.

연속을 통한 형태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주름의 선은 결합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적이며 반복적인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반복적인 형태가 연속이 되면 리듬이나 울동을 나타낸다.

본인의 작품이 제시한 주름의 접힘과 펼쳐짐은 반복적 형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주름은 내향적인 본질과 밖으로 드러난 주름은 외향적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생겨지는 인간의 양가 감정이 커다란 하나의 천을 이용해 일정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주름을 형성하며 여러 가지의 감정 분출이 한곳에서 나옴을 의미한다.

3) 질 들뢰즈,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역, 문학과 지성사, 2004, p.14-21 참조

라이프니츠에 의한 탄성운동설명⁴⁾을 보면 모든 운동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모든 사물의 구조는 중첩되어 있으며 모든 운동은 점진적, 순차적, 연속적이라고 말한다. 연속성은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이라 말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또 다른 특징에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고정적인 틀에서부터 시작된 주름의 덮임은 끝이 없는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다. 겹쳐져 있는 구조들을 펼치는 순간 이 천들은 평평하고 흔적이 없던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형태적 특징은 18세기 이후에 대량생산화 과정을 거치며 발달한 동일한 반복적 형태와는 다른 구조의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겹혀짐과 펼쳐진 구조의 주름이 크기, 두께, 형태가 다른 안과 밖의 반복적인 주름을 통해 주관과 객관, 원인과 결과, 우연과 필연과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상반된 감정표현

인간 스스로의 본성은 몹시 나약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약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인간의 이중성은 자아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응축되어 폭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는 대중 사회이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 남에게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들과 비슷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무던히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 결과로 인간은 타인 지향형이 되고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명인들을 보며 이상

4) 물체 'a'와 물체 'b'가 부딪혔을 때 물체의 표면에서 변성이 일어나며 이 변성은 점진적으로 하위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운동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후 반발력이 생겨 표면의 변형이 복구되는 운동을 말한다.

-이정우, <겹힘과 펼쳐짐>, 거름, 2000, p.99

향의 벽은 높아져 있고 익명성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획일화 되어버린 인간 개개인의 의견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나와 다른 남은 그저 이상한 사람일 뿐이다. 다른 의견의 소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상처받은 소수는 보호막을 설정하고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본인은 이 소수의 보호막을 천으로 사용하여 보호막 내부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형태의 움직임이 소극적이기도 적극적이기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만 본인이 만든 보호막과 현실의 경계사이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듯한 인간소외⁵⁾ 된 현대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용되어진 천은 인간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을 숨기는 도피처 같은 존재이다. 천이 가진 용도 중 우리가 상시 접하고 있는 옷에 이용되어지는데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체온을 보호하고 신체를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타자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과 의견을 나눔으로 인해 틀어지는 관계들에 대해서 보호받길 원한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천은 감추어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천은 금방이라도 찢어져 버릴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의 내면도 그러하다. 감추어진 막 안에서 뚫고 나오려는 강한 움직임은 내면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보여주었다. 때론 소극적인 손짓을 통한 전달과 강하게 천을 뚫고 나오려는 큰 움직임을 통해 강하게 폭발되어 질 감정의 분출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난 주

5) '소외'라는 용어는 헤겔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의 의해 지배되는 동시에 그의 생활에 충족을 찾아내지 못하고, 인간상호간의 관계도 이해타산의 관계로 되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가고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멜빈 레이더, 버트랑 제섭,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 실천, 1987, p.425

름은 엄마 뱃속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태아의 편안함, 종교적 안식,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고통, 두려움, 초조함 등 여러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 흰색의 의미

현대사회에서 색채의 역할은 정서적인 표현에 초점을 두면서 그 사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과 컬러TV의 등장으로 시작된 색채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흰색은 보편적으로 순수하고 성스러운 색으로 인지되어 왔다. 흰색과 검정색은 밝음과 어두움,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겨난 색명이다.⁶⁾

흰색은 검정색과 함께 색채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부터 인식되어 온 색상이며, Berlin과 Kay(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지역의 98개 종족의 언어를 조사한 결과 색 이름의 발달과정에서 흰색과 검정색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흰색은 일반적으로 순수성, 깨끗함, 신성함, 고결함, 치유, 시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에 전체에 사용된 흰색은 속임수가 없는 색으로 더럽혀 지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색이다. 우리가 신을 떠올렸을 때 흰색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시작과 부활의 의미도 담고 있는 색채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과 양가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색채가 가진 의미가 최소화 되면서도 가장 알맞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색으로 흰색이 선택되었다. 하지만 흰색이 최소한의, 순수함을 지닌 색만은 아니다. 흰색은 때로는 외로움이며 두려움이기도 하다. 순백색의 공간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인해 이 공간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본인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이 공간에 융화되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6) Eva Heller, <색의유희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이야기 1>, 이영희 역, 예담, 2002, p.233

7)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미진사, 2001, p.177

흰색은 때에 따라 불편한 색이 되기도 한다.

본인이 사용한 흰색의 천에서 오는 이미지는 소박함, 따뜻함 보다는 전시장 공간의 상태와의 이질감 없이 확연히 드러나 있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비어있는 짐에 덮여 놓은 흰색천을 떠올리면서 정적이고 낯은 사진과 같은 희미한 시각적 효과를 드러나게 한다. 힘에 의해 변형이 생기면서 주름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효과적인 색이다.

3. 작품 분석



【작품 1】 흔적을 남기다 (Leave a trace)

FRP

120x120x48cm / 73x78x32cm

2013

【작품 1】 흔적을 남기다 (Leave a t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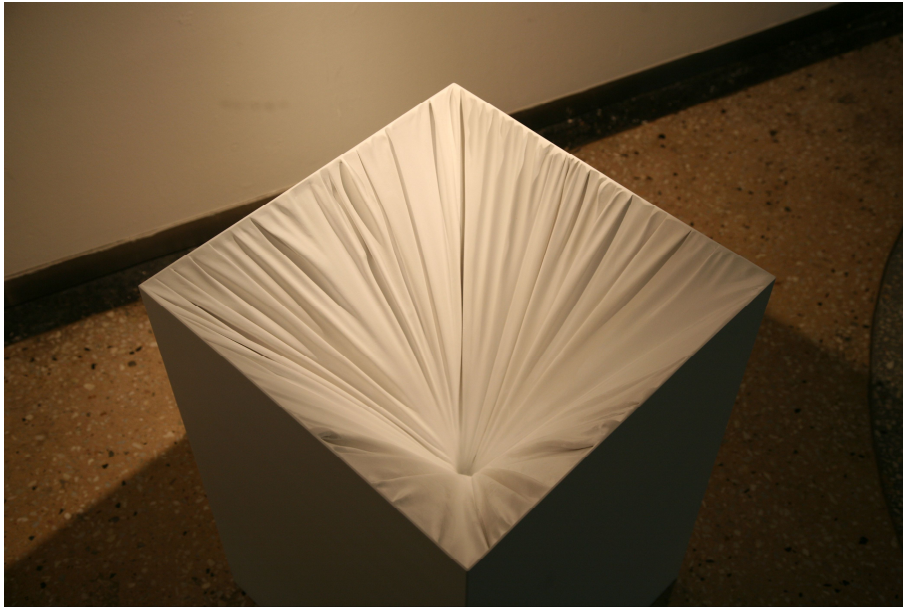
크 기 : 120x120x84cm / 73x78x34cm

재 료 : FRP

제작년도 : 2013

제작방법 :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와 흡사한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동그란 빈백소파에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흔적을 남겨주었다. 빈백 소파는 외부의 힘이나 압력등에 탄성운동이 아닌 압력을 받은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는 습성을 이용해 흔적의 주름을 나타나게 했다. 그 후 점토로 모델링 후 석고를 이용한 걸가다를 제작하고 최종 물질은 FPR로 캐스팅 하였다.

작품설명 : 힘의 무게가 실린 물체의 압력으로 인한 주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오고 무너지는 관계에 대해 보이려고 한다. ‘한번 지나간 모든 것에는 주름이 생긴다.’라는 라이프니츠의 이론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행동하는 곳마다 주름이 생기고 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동안에도 힘은 발생하고 주름이 생긴다.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동안에 소파에 앉았을 때 불안과 초초한 감정을 내려놓았는지 포근한 안식을 느끼고 사라졌는지는 그곳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낸 자 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가 되어버린 흔적들을 눌러진 힘으로 본다면 힘의 흔적을 주름으로 나타내어 바깥으로 드러난 주름과 내부로 파고 들어간 주름들이 표현됨으로 주름의 깊이를 통해 인간 삶의 무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한곳으로 모여들다 (Converge at one place)

철판, 천(fabric), FRP

560x560x800cm

2013

【작품 2】 한곳으로 모여들다 (Converge at one place)

크 기 : 560x560x800cm

재 료 : 철판, 천(fabric), FRP

제작년도 : 2013

제작방법 : 사각의 나무프레임에 한 장의 천을 사방으로 고정시켜 가운데 지점에 얇은 기둥을 걸쳐 잡아당긴 후 FRP를 천에 발라서 형태가 딱딱하게 굳어질 때 까지 반복 작업하였다. 굳은 형태를 사각의 나무 프레임에서 떼어내어 3T두께의 철판을 용접하여 사각형의 틀을 만든 후 떼어낸 굳어진 천을 집착제를 이용해 붙이고 흰색의 도료를 칠해 마무리 하였다.

작품설명 : 내부의 힘에 의해 당겨져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든 주름은 수많은 선을 생성한다. 그렇게 방향성과 속도감을 지닌 주름은 내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막연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원래의 평평하고 편안했던 천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에 의해 당겨졌을 때의 형태를 굳혀내어 인간사회의 힘의 작용을 표현하였다. 사각의 프레임이 하나의 세계라 가정한다면 외향과 내향의 수많은 주름은 거기에 속한 인간의 일부이다. 하나의 이상향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언젠가부터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감정 표현이 본 작품을 통해 같은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지만 각자의 주름은 형태가 다르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융화되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천은 그저 평평한 상태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힘이 작용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알 수 없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다. 천에는 수많은 면들이 생겨났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형태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이며 하나의 힘이 한

방향으로 몰아넣은 형태를 띤다. 힘이 지닌 방향성은 속도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속도에 휩쓸려져 다수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작품 3】 대립 관계 (ntagonistic relationship)

철프레임, 천(fabric), 와이어

90x45x130cm / 150x45x180cm, 가변설치

2013

【작품 3】 대립 관계 (antagonistic relationship)

재 료 : 철프레임, 천(fabric), 와이어

크 기 : 90x45x130cm / 150x45x180cm, 가변설치

제작년도 : 2013

제작방법 : 가변성을 지닌 설치작품이다.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긴장감을 표현하였다. 왼쪽에 설치작품은 두 가지의 성향을 대립하고자 표현되어 졌다. 뒤편에서 당기는 힘에 의한 다른 표현 방법인데 힘의 방향성과 힘의 정도에 의해 천이 최대한으로 당겨져 있고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느슨한 형태의 주름을 만들어 내었다.

작품설명 : 앞에 【작품 1, 2】는 천의 물성을 없애고 형태를 굳혀내어 제작한 방식이었다면 【작품 3】은 천이 가진 그대로의 물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관람자가 보고 느끼기에 조금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반복적 성향은 리듬감을 발생시키고 힘에 의해 당기고 묶여진 곳에 닿은 시각은 그 끝 지점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가운데로 모이고 있는 합일의 지점에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혹은 수많은 주름의 길을 통해 그곳에 도달한다 해도 안정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작품의 의미도 다르게 보여 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름이라는 단편적 요소 역시 겉으로 드러난 감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가늘고 좁은 주름의 형태는 긴장, 불안의 부정적 요소도 드러나 있고 곡선의 형태를 이용한 풍만함, 안정의 긍정적 요소도 찾아 진다. 새로 산 옷을 입으면 그 옷에서 나의 행동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많은 주름들이 생긴다.

나와 나의 관계에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작품 4】 내면의 분출(Belch out inner)

철판, 천(fabric), FRP

560x560x120cm

2013

【작품 4】 내면의 분출(Belch out inner)

재 료 : 철판, 천(fabric), FRP

크 기 : 560x560x120cm

제작년도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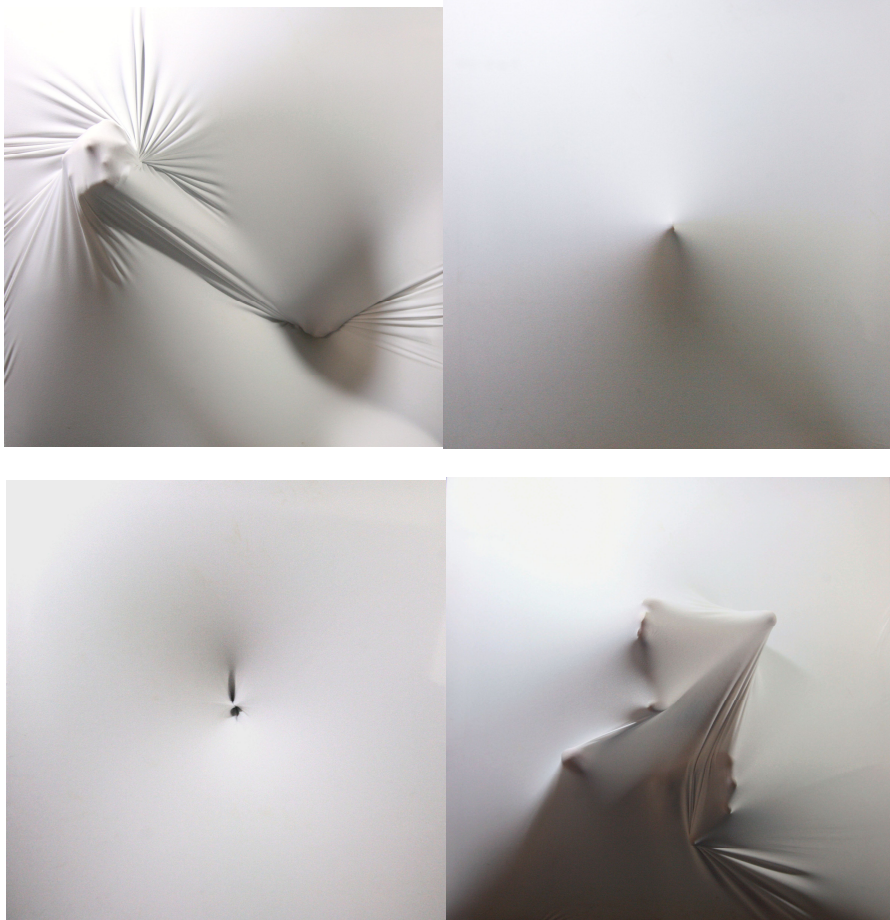
제작방법 : 【작품2】 와 마찬가지로 사각의 나무프레임에 사방으로 천을 고정한 후 둥근 형태의 물체를 이용하여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를 잡고 FRP를 여러 회 발라서 굳혀낸다. 틀을 잡기위한 나무는 잘라내고 3T두께의 철판을 용접하여 사각형의 틀을 만든 후 접착제를 이용해 붙이고 흰색 도료를 칠해 마무리 하였다.

작품설명 : 내부의 무언가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터져 나올 것 같은 형태를 한 이 작품은 앞선 작품들과는 약간 다른 배경을 가진다. 인간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에너지를 분출시킴으로 현대사회에 억압되어왔던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소외는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여겨지며 시대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 지고 있다.

소외는 개인으로 하여금 외부나 내부로부터의 고립을 경험하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자기(자아)의 존재에 대해 무의미하게 여기게 한다. 이러한 소외에서 오는 고립감과 무력감, 무의미함은 인간이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며,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 고립은 인간의 본성을 점점 더 감추게 하며 동굴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지만 언제나 내재되어있는 본성은 천을 뚫을 듯한 형태로 분출을 꿈꾸고 있으며 천의 움직임과 형태가 우리의 억압된 감정을 대

변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획일화되어진 삶에 대한 저항을 천의 가려짐을 빌려 표현하였다. 천이 본인의 작품에서 보호막이 되어 분출의 형태가 과하지 않게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5】 Action wrinkle
천(fabric), 캔버스천에 프린팅
각 30x30cm, 가변설치
2013



【작품 5】 설치전경, 2013, 갤러리이즈

【작품 5】 Action wrinkle

재 료 : 천(fabric), 캔버스천에 프린팅

크 기 : 각 30x30cm, 가변설치

제작년도 : 2013

제작방법 : 카메라로 천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촬영하여 그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 주름을 캔버스천에 프린팅 하였다.

작품설명 : 2008년 시작된 본인의 작품이 출발하게 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천의 씩운 액자에서 밀려나오는 손의 움직임을 통해 소외되어진 나의 감정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전 작품에서는 앞의 나열된 작품에서 보여진 FRP를 이용한 천의 굳히는 방법을 통해 고정시켰다.

장르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 미술에서 작품에 쓰이는 표현방식 또한 다양화 되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움직임을 통한 퍼포먼스를 사진을 통해 나타내 보았다. 기존의 작업에서는 흔적을 이용한 과거의 기억과 주름을 보여주려고 하였고 현재의 작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의사 표현을 나타내었다. 각기 다른 형태에서 나타난 손짓과 주름의 형상들로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도 있고 태중에 자리한 아기의 성스러움, 안정적인 이미지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천 이라는 막을 이용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감정의 분출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페르소나⁸⁾ 즉,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가장 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인격의 가면이라고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개인이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계와 연관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사용한 천이 인격의 가면 역할을 하며 감춤과 드러남을 통해 현실의 혼란을 야기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8) 본디 연극배우가 쓰는 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우인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철학용어로는 이성적인 본성(本性)을 가진 개별적 존재자를 가리키며, 인간·천사·신 등이 페르소나로 불린다. 즉,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책임을 지며 행동하는 주체를 말한다. 또 신학용어로는,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실체를 가리키며, 삼위일체의 신 곧, 제1페르소나인 성부(聖父), 제2페르소나인 성자, 제3페르소나인 성령을 이르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작품 6】 이중의 벽(A double wall)

천(fabric), 커튼봉

20x340x280cm, 가변설치

2013

【작품 6】 이중의 벽(A double wall)

재 료 : 천(fabric), 커튼봉

크 기 : 20x340x280cm, 가변설치

제작년도 : 2013

제작방법 : 암막천을 커튼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전시장의 천장과 바닥에 맞춘 크기로 가변적인 벽을 만들었다. 커튼의 앞 쪽의 주름은 조금 더 깊고 좁은 폭을 주었고 후반부에서는 넓고 큰 주름폭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하였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설치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졌으며,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보던 여러 색의 화려한 커튼과는 다른 무색의 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천장과 바닥의 높이를 맞추고 벽에서 약 1m 가량의 공간을 띄워 보온의 역할보다는 가벽의 형식을 취한다. 관람자가 조명이 비추어진 앞쪽 공간에서 주름의 들어가고 나오는 형태를 바라보는데 반대편에서는 앞쪽의 들어간 주름이 반대로 나와 있는 주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각자 개인의 위치에 서서 바라보는 시각적 인식을 본인이 직접 그 반대의 위치에 가서 있기 전에는 반대의 입장에서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듯 서로 다른 면에서 의미가 달라짐을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이다.

【작품6】에서 보여 지는 안과 밖의 공간은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모든 사물에도 존재한다. 힘에 의한 주름의 접힘과 펼쳐짐의 구조를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진 작품이며 시작지점에서 좁은 주름의 표현이 커튼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를수록 주름의 골이 넓고 얇아 지는데 인간의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강한 힘과 약한 힘을 주름의 넓이와 간격으로 표현되었다.

Ⅲ. 결 론

힘의 형태가 주름을 통해 나타난 본인의 작품에서는 인간사회의 불균형을 표현하고 인간의 상반된 감정을 대변하며, 내면에 감추어둔 감정의 힘을 분출하여 생기는 주름의 이미지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내보인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을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작용하길 원한다. 그리고 힘을 드러내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큰 힘에 의해 지배당하기도 한다. 평형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 속에 상호보완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개인의 노력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든 드러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구조를 따라가기 위해 획일화되고 감정의 지나친 배제가 무의미한 삶을 조장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성향도 드러나고 있다.

본 작품연구를 통해 힘의 형태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 힘에 대해 무수히 많은 변형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한 힘은 긴장을 일으키고 대립을 나타내기도 한다. 힘을 통해 나타난 주름이 인간사회의 구조를 대변하고 주름의 구조는 접힘의 행위를 거쳐 두 개의 면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펼쳐짐을 통해 본래 하나의 면이었음을 나타낸다. 하나의 힘에서 오는 수많은 주름의 형태가 보여주는 의미는 합일점을 찾아 융합을 이루고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게 한다.

공간 속에 나타난 안과 밖의 구조를 통해 상반된 시각으로 표현된 인간의 감정이 작품에서 당겨져 있지만 밀어내고도 있는 대립의 구조적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 본인 역시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구조 속에서 나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닫는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소극적인 감정표현을 통해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스

스로의 보호막을 통해 외부와의 차단을 원하면서도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본인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순된 감정이 당김과 밀어내는 방향성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사회의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의 영향력을 감지하지도 못할 만큼 작은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힘이 드러난 구조 속에서 혼돈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평형과 안정을 찾아가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순응해간다.

이제까지 나열된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난 힘의 형태와 그에 대한 표현적인 기법으로 나타난 주름형태를 통해 현대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감정적 대립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전의 작업부터 지금까지의 탐구와 표현방식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형태 연구에 있어 더욱이 다양한 표현과 힘의 변형이 미치는 구조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도록 발전된 연구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번역본>

- 멜빈 레이터, 버트랑 제섭,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 실천, 1987
-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미진사, 2001
-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거름, 2000
- 이정우, <주름, 갈래, 울림>, 거름, 2001
- 정인석,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대왕사, 2008
- 질 들뢰즈,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역, 문학과 지성사, 2004
- 최종근, 이성범, <해석 재료역학>, 청문각, 2007
- 칼.옴 외,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서울: 열린책들, 1996
- Eva Heller, <색의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이야기 1>, 이영희 역,
예담, 2002
- Gilles Deleuze, <The Pleats of Matter>, Folding in Architecture, 1993
- Vilder, <Wrapped Space>, Published by MIT Press, 2002

<기타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Study on Feelings Expression Expressed in Wrinkle Shapes -Centering around My Work-

Han, Jihye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Arts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expressed the human's inside and outside feelings through the wrinkle's shape revealed by the power's action in my work which was created in 2013, and the opposite feelings built in the wrinkle, and also expressed the wrinkle's structural shape by connecting the human's opposite feelings via the wrinkle as a transformed shape transformed by the power's action structure.

Human has both contrasting tendencies referred to the 'consciousness' revealed outside and the 'unconsciousness' hidden inside, but unless these two different tendencies keep complementary relationships, the society can't help being fallen into tremendous chaos. Like that, in my work, the power hidden inside with not being revealed was revealed through the wrinkle, and the power's formativeness got the traces of

human's feelings and the time passage built in the traces to be seen as the shape of surface wrinkle.

In my opinion, although everything in the world has opposite, conflicting factor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n and reaction, but there is the structure where everything in the world lives with complementing each other.

German philosophy, Leibniz said that 'the smallest unit is a wrinkle, and its accumulation generates a big society and builds the world.' Wrinkle has the perspective integrating the incidents happened in society in bulk, not simply morphological description. In my work, I expressed the human's psychological feeling shapes into the wrinkles' contrasting shapes. The wrinkles are started at a structure (power), and a wrinkle having enormous, consecutive structures express the conflicts and the fusions among the feeling shapes remaining in human societies. Besides, my work expressed the contrasting feelings through the coexistence between tension and softness felt in the transformed wrinkle shape by the power's action.

In the Chapter I. Introduction, I suggested the study's starting point and its purpose and the direction about my work.

The Chapter II. Main Discussion was composed of three sections. In the section 1, I described the relationships of complementary feelings among humans living in contemporary times when the power structure is not in equal state, and that was my work formation background. Also in the section 1, I formed and visualized the shapes of opposite feelings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wrinkles' consecutive structure, their pulling and pushing as the formative characters in my work, and described the meaning of white revealed in my work. Besides, in the section 1, I analyzed my work and described the installment method, the used materials and the meaning of my work.

In the Chapter III. Conclusion, I summarized the study contents about my work, and suggested the things to be complemented and the problems to be solved in my work, and considered what ways the study direction for my future works should be pursued with.